

현대건설 4년 연속 1위 수성, 대우건설 빅3 진입

- 2012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은 지난해 이어 2위 고수 -

최영근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과장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7월 31일 2012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 4개 항목으로 종합 평가액을 산출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이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약진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만 540개 종합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재무 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별 시공능력을 산정한 결과 종합 건설업 대표 업종인 토목건축업종에서 현대건설이 11조 7,108억원으로 4년 연속 1위를 굳건히 수성하였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10조 1,002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고수하였

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해보다 2조 3,305억원 상승한 9조 2,224억원으로 6위에서 3위로 3계단이나 뛰어 올랐고, 지에스건설 8조 9,002억원, 포스코건설 8조 1,298억원, 대림산업 8조 556억원으로 각각 4위, 5위, 6위로 한 계단씩 내려앉았다.

이번 시공능력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대우건설과 두산중공업의 약진이다. 대우건설은 지분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으로 지난해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2조 3,305억원 상승하였는데 이는 경영평가 부문이 지난해 총당금과 해외부문 잠재 부실에 따른 큰 손실로 급감한 이후 다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면서 3계단이나 뛰어 올라 2009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빅3'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자본금 등의 증가로 시공능력평가액이 2조 9,795억원으로 지난해 10위인 두산건설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면서 12위로 물러난 사이 10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TOP 10'에 새롭게 진입하였다. 그 외 7~9위는 지난해와 변동 없이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건설이 자리를 지켰다.

신인도 평가 구성비 확대

2012년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 부문별로 살펴보면, 토목건축 공사 실적이 2008년 이후 매년 하락하면서 공사 실적 평가액은 43.4%에서 40.7%로 축소되었고, 지난해 평가에서 미반영되었던 상호협력평가 결과가점이 반영되면서 신인도 평가 구성비가 지난해 3.2%에서 5.2%로 확

대되었다. 개별 업체별로는 최근 3년 간 공사 실적이 반영되는 실적평가 부문은 현대건설이 1위이고,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자본금 등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경영평가는 현대건설에 이어 대림산업이 3조 256억원, 지에스건설이 2조 7,845억원으로 2, 3위에 올랐다. 기술자 수 및 기술개발 투자비 등을 반영하는 기술능력평가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순으로 각각 2조 8,386억원, 2조 4,184억원, 2조 4,115억원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우대 혹은 제재 사항 등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신인도평가는 삼성물산이 8,377억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대우건설이 7,994억원, 포스코건설이 7,138억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 2011년도 업종별 공사 실적을 분석해 보면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9,549억원으로 1위, 대우건설이 1조 8,077억원으로 2위, 삼성물산이 1조 6,851억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건축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3조 5,561억원으로 1위에 올랐고 현대건설 3조 2,760억원, 포스코건설 3조 1,2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토목건축 합산 부문(토건)에서는 역시 현대건설이 6조 2,308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6조 1,070억원으로 1위에 올랐고, 조경 분야에서는 삼성에버랜드가 1,017억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업체별 보유 기술자 수는 현대건설이 4,542명, 삼성물산 4,084명, 대우건설 4,046명, 지에스건설 3,627명, 대림산업 3,002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사의 기술자 수는 모두 2만 8,239명으로 전체 기술자 수의 16%에 달하고 전년 대비 1% 상승하였다.

실적 하락 불구 총 시평액은 상승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의 특징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라는 대외적인 요인과 국내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에 따라 공사 실적의 하락으로 실적평가 부문이 축소되었으나, 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과 R&D 부문의 꾸준한 투자에 힘입어 기술능력과 신인도 평가 부문의 영향으로 총 시공능력 금액이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최근 워크아웃 또는 기업 회생절차 대상 업체가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 진행 중이거나 대상 업체들의 순위는 작년 이어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ERIK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0개사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2012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 순위	
		2012	2011
현대건설(주)	11,710,753	1	1
삼성물산(주)	10,100,166	2	2
(주)대우건설	9,222,376	3	6
지에스건설(주)	8,900,201	4	3
(주)포스코건설	8,129,830	5	4
대림산업(주)	8,055,556	6	5
롯데건설(주)	5,023,950	7	7
현대산업개발(주)	4,602,929	8	8
에스케이건설(주)	4,015,746	9	9
두산중공업(주)	2,979,524	10	12
(주)한화건설	2,796,059	11	11
두산건설(주)	2,405,097	12	10
쌍용건설(주)	2,099,122	13	14
경남기업(주)	2,063,681	14	17
삼성엔지니어링(주)	2,056,468	15	21
금호산업(주)	2,045,228	16	13
한라건설(주)	1,879,910	17	16
(주)태영건설	1,846,694	18	19
계룡건설산업(주)	1,814,405	19	20
(주)한진중공업	1,810,136	20	15
현대엠코(주)	1,760,095	21	23
코오롱글로벌(주)	1,693,265	22	22
동부건설(주)	1,573,368	23	18
(주)케이씨씨건설	1,515,353	24	25
한신공영(주)	1,479,395	25	24
삼성중공업(주)	1,415,116	26	27
(주)한양	1,276,794	27	31
벽산건설(주)	1,241,768	28	26
풍림산업(주)	1,220,761	29	30
(주)서희건설	1,197,398	30	35
삼환기업(주)	1,059,130	31	29
(주)호반건설	1,039,475	32	49
신동아건설(주)	972,171	33	34
삼부토건(주)	905,669	34	32
남광토건(주)	899,943	35	39
삼성에버랜드(주)	873,123	36	47
에스티엑스건설(주)	861,671	37	33
극동건설(주)	840,181	38	37
현대중공업(주)	835,056	39	28
(주)동양건설산업	811,069	40	36
(주)서브원	800,328	41	52
고려개발(주)	742,476	42	38
진흥기업(주)	723,007	43	41
동아건설산업(주)	698,282	44	55
(주)포스코엔지니어링	688,807	45	42
신세계건설(주)	674,942	46	44
우미건설(주)	641,184	47	56
현대엔지니어링(주)	575,848	48	51
한일건설(주)	559,932	49	48
울트라건설(주)	559,700	50	50